

01 교회소식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전 세계 기독교방송인들의 축제 '2016 NRB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교회 GCN방송 선교 출장 소식.

02 생명의 말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빛과 소리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인간경작을 계획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03 간증

변화와 치료 ... 그리고 행복!

놀라운 권능으로 천식, 대퇴부 경부 골절이 치료되고 지속되던 하혈이 멈추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04 세계 in 만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읽고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리워드 시밴다 성도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해외 성도들.

만민뉴스

제730호 2016년 3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GCN방송, '2016 NRB 총회 및 박람회' 참가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우수 기독교방송인들과 협력하다



①NRB 회장 제리 존슨 박사(가운데) ②이사회 존 칼리 수석 부이사장(오른쪽) 방문 ③GCN방송 부스 ④전 회장 프랭크 라잇 박사(가운데) 방문 ⑤뉴욕 17번 채널 대표 워렌 트럼블리 박사(가운데)와 업무협의 ⑥이사장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 홍보

미국 내슈빌 시 게이로드 오프라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16 NRB 총회 및 박람회'에 GCN방송이 참가했다.

NRB(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는 기독교방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40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방송기술과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있다. 올해에는 44개국 175개 업체에서 4,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독교방송인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방송기술을 교환하며 방송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GCN방송(www.gcntv.org)은 인터내셔널 리셉션 참가를 시작으로 영화사 사회 참가, TV자문위원회 미팅 등을 통해 여러 방송 사역자들과 협력을 도모하였다. 미디어 리더십 만찬에서는 중동지역 상황과 IS(극단주의 이슬람교도)의 영향, 동성애자 등 소수그룹에 의한 기독교언론과 신앙의 압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각종 세미나와 모임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석학들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여러 편의 기독교영화 시사 및 평가회에서는 성경적인 기독교영화 제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미국대선후보 경선 중 Super Tuesday(수퍼화요일) 한 주 전에 NRB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포럼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천국'과 '성결'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흰색으로 디자인한 GCN 부스에는 HD로 제작된 이재록 목사의 각종 설교 프로그램과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 축하공연, 「회상」과 「믿음으로 걸어온 길」 등 해외 연합대성회 프로그램, 「창조와 과학」, 「WCDN」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영하였다. 또한 이 목사의 다국어 저서와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6)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GCN방송 부스에는 NRB 회장 제리 존슨 박사를 비롯한 NRB 지도부 인사들이 방문하여 교제를 나눴다. NRB 전 회장 프랭크 라잇 박사는 "GCN방송의 다각적인 활동, 특히 이스라엘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흥미롭습니다. 이사장 이재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존 칼리 수석 부이사장은 "NRB의 세 가지의 신조인 성경적 정확성과 미디어의 우수성,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 보호를 충족하고 있는 GCN방송을 만나니 무척 기쁩니다."라고 했다. 안드레 빈육 RBN방송(러시아방송 네트워크) 대표는 "이재록 목사님 설교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으니 너무도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GCN방송 출장팀은 NRB 전 아시아 방송사 대표인 존 앵커버그 박사, 뉴욕 17번 채널 대표 워렌 트럼블리 박사, CNL 막심 막시모프 사장, IBN 랜디 와이즈 박사, NRB 국제위원회 스탠 지터 위원장 등 세계 기독교방송인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방송 협력 증진에 관해 협의하였고,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방송 선교의 원대한 비전을 되새겼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3.20~3.26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 천국 41-45
- 지옥 12-16
- 공간과 차원 1-2
- 요한일서 강해 7-13
- 요한계시록 강해 57-62
- 의와 인과 신 1-2
- 육체의 결여 1-5
- 일곱교회 25
- 말씀의 열매 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내가 시행하리니 10-14 (이수진 목사)
- 지혜 4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3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19 (신동호 목사)
- 열재앙 3 (정구영 목사)
- 목자의 공간 1 (이해천 목사)
-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교경아 전도사)

GCN TV설교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3
- 내 마음의 찬양 9
- 창조와 과학 21
- 모두 드려요 45
- 즐거운 요리 26
- 옛날 옛적에 6
- English 12
- 뷰티풀 라이프 10
- 흥겨운 소리 9
- 플로리스트 7

예능 프로그램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4
- 회상 [시즌2 종합편]
- 2015 부활절 공연

해외성회 및 특집 프로그램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14)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며 다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을 창조했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이라면 당연히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낳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 태초에 근본의 빛과 소리로 계시며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제한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두움’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하며 ‘빛’이란 죄나 악이 전혀 없이 사랑, 선, 의 등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빛이실 뿐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셨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운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 곧 근본의 빛과 소리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인간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 경작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입게 되셨는데 과연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 형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닮았었지요.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던 마음이 변질되어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3.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찬양과 경배의 대상

피조물인 사람과는 달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가 경배하며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속이나 나무, 돌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나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므로 그분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모친이라고 한 것은 제자들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 부모의 기를 물려받고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결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근본의 빛과 소리로 계셨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지으시고 경작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로서 인간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알아야 하나님과 사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람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도 ‘언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시작과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끝이 있지요. 골동품도 그것이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고, 역사적인 사건에도 그 시작과 결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처음에 존재하셨는지 시작점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생각한다면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시작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변화와 치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일부를 소개한다.

“믿음으로 악수한 뒤 천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전병협 집사 (47세, 마산만민성결교회)



단순히 감기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증세가 심해져 호흡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숨쉴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자다가 두세 번씩 깨고 나면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중에 호흡 곤란이 찾아와 창문을 열어놓고 숨을 쉬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지요.

2014년 10월 병원 진단 결과, 원인불명의 천식이었습니다. 저는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 주 안에서 충성하는 건강하고 단란한 가족
(왼쪽부터 전병협 집사, 아들 세현, 영현 형제, 아내 임효정 집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악한 모습이 많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지요.

2015년 2월 초, 꿈에 제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붙들고 제 병명을 말씀드리며 무릎을 꿇었더니 당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당회장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손바닥에 제 병명을 기록하여 믿음으로 악수를 하였지요. 그 뒤로는 천식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천식이 치료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골절된 뼈가 급속도로 치료되었어요”

이향원 권사 (56세, 2대대 15교구)

2015년 11월 7일(토), 급히 걷다가 바닥에 미끄러졌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부축을 받고 일어났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했지요.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른쪽 대퇴부 경부(고관절 밑 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서 뼈를 고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니 한 달 이상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증으로 잠을 거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족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요.

다음날인 주일,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서신을 통해 기도를 요청했는데 어느 순간 통



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히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월요일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 걸레 붕을 붙잡고 저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지요.

다음날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설 수 있었고, 이후 급속도로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니 골절되었던 대퇴부 경부 골막이 매끄럽게 유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호두알만한 혹이 사라졌어요”

김미숙 권사 (44세, 1대대 1교구)



2015년 초부터 전혀 없던 생리통이 심해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배가 아팠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하였고, 8월부터는 생리 양 과다에 평소에도 하혈을 하니 얼굴은 누렇게 땀, 기운이 없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웠지요. 숨이 차고 심한 빈혈과 변비 증세가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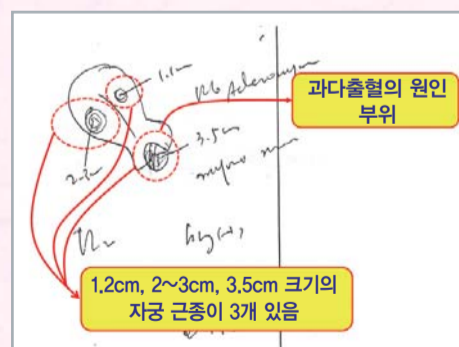
2016년 1월 4일, 자궁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 의사는 “혹이 3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2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궁 아래쪽의 혹이 호두알 크기로 자궁을 누르고 있어서 이것이 하혈의 원인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자궁을 들어내야 합니다.”라며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돌아보며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는 했지만 자존심과 교만 등의 악한 마음과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였습니다. 1월 15일, 여선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

선 목사님에게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뒤 변과 하혈을 한 차례 쏟아냈지요. 이를 뒤 또 한 차례 쏟아내며 새카만 덩어리가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혈이 멈추고 생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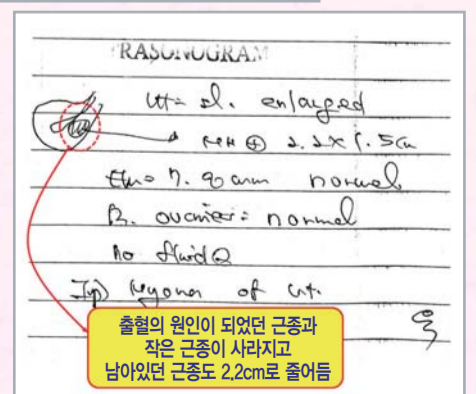
이후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하며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준비하였고, 2월 7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성도 만남 시 전체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악수한 후로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며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뺨에 볼그스름하게 혈색이 돌아오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숨도 차지 않고 변비 증세도 싹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2월 18일, 다시 자궁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됐던 자궁 아래쪽의 호두알만한 혹과 자궁 안쪽에 있던 한 개의 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머지 하나는 3cm에서 2.2cm로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 기도받은 후



“『영혼육』 책을 읽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리워드 시반다 성도



2015년 NRB 박람회에서 이재록 목사의 저서 『영혼육』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리워드 시반다 성도는 책을 읽고 큰 감명과 깨우침을 받아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다며 올해에도 GCN 방송 부스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사진은 GCN방송 이재록 국장과 리워드 시반다 성도).

이재록 박사님의 저서를 통해 받은 인상은 참으로 놀랍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많은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개념들이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록 박사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개념을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요.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영혼육(상)』과 『영혼육(하)』는 각각 13개, 6개 언어로 발간되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한 차원 뚫렸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찢러 쪼갬다는 말씀 등이 이해가 되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지요. 이 책은 제 삶을 변화시켰고, 읽는 이들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첸드수렌 성도 (35세, 몽골만민교회)

1999년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러나 저는 밤중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깨어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제 입을 손으로 막는 것 같아 숨이 멎어 죽을 것만 같았고, 하루 밤 사이에도 수차례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니 마치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만 같았지요.

매일 밤 이런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심장과 폐 검사를 하고, 심지어 정신과 진단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의 힘을 빌어보기도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지요. 더욱이 수년 동안 매일 밤 호흡곤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서인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르게 걸으려면 호흡이 가빴습니다.

2015년 10월, 병원 검진 결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했습니다. 부정맥에 의한 발작성 호흡곤란이었지요.

그래서 11월, 몽골만민교회 장로님이었던 저는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 발저릭 담임선교사님이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 주셨는데, 그 손수건은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지요.

기도를 받는 순간, 제 몸에서 안 좋은 것이 빠져 나오는 것 같았고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좋고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잘 자고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뛰어다녀보아도 아무렇지 않으니 신기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만성말라리아를 치료받았습니다”

헤리티에 콜롱지 카바셀레 성도 (32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2006년부터 심한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 검사 결과 만성말라리아였습니다. 왼쪽 옆구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고, 바로 누울 수가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자야만 했습니다. 또한 두통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는데, 비종(비장의 비대)으로 인한 것이었지요. 약도 복용하고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해 2월, 킨샤사 소재 승리의 거리 1997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콩고연합대교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기를 원하셔서 성회에 참석했는데 환자기도를 받은 뒤 비종 증세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 고열 증상이 심해져 매년 6, 7월이

되면 갑작스런 발작으로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기 일췌였습니다. 급기야 2011년에는 직장에도 다닐 수가 없었지요.

2015년 1월, 친구에 의해 킨샤사만민교회에 등록한 저는 두 달 뒤 교회창립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 상태로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에 동참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각종 예배에 참석하면서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떠한 몸의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을 심한 두통으로 온몸에 땀이 나고 힘이 없어 누워 지냈는데 건강해져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벽성 B/D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